

이코노 & 비즈 피플

유성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 2월 취업자 72만명 ... 4.7% 증가

“예산 60% 상반기 집행 ...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 건설업계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도급 참여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유성용(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2일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지역 건설업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접어드는 상황”이라며 “익산국토청은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발주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착공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은 전국에서 해상교량 건설이 가장 활발한 만큼,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의 신기술이 시도되는 교량 건설의 최첨단 지역”이라며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율 40% 되도록 할 것

서남해안 해상 교량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청장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상반기에 8768억원(신규사업 9건 포함)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율이 40% 이상 되도록 조달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 해상교량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청장은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

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호남지역에서 추진중인 50억원 이상 현장 중 주요구조물이나 안전취약 시설물이 포함된 258개 현장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점검방안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새천년대교 건설과정의 공사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역민에게 최선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교체하고,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현장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리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과 조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

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손해”라는 인식이 전 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최종 조사결과와 자체 감사결과 등을 반영해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유 청장은 올해 조직운영방안에 대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외부 전문가의 초청 강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직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출신인 유 청장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장,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개발정책관 등을 거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호남통계청, 고용동향

지난달 광주지역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호남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4년 2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58.5%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광주가 7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4.7%) 증가한 데 비해 전남은 87만명으로 1만1000명, 비율로는 1.2% 감소했다.

실업률의 경우 광주는 지난해 2월 3.8%에서 올해 2월 4.3%로, 0.5%포인트 상승했고, 전남 역시 3.2%에서 4.9%로 1.7%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광주가 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19.4%), 전남은 4만5000명으로 1만6000명(54.0%)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2만1000명에 이른다.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광주는 남성이 1만7000명으로 2000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1만6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8000명이나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남성이 2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때보다 7000명(53.0%), 여성은 2만4000명으로 9000명(55.8%)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KT·LGU+ 오늘부터 영업정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이 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17면>

가장 먼저 영업정지 대상이 된 이동사는 KT와 LG유플러스(U+)다. KT는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정지되

고, LGU+는 다음 달 4일까지 영업정지가 된 이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과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동률기자 exian@

베이커리 업계 5년간 매출

화이트데이 > 밸런타인데이

매년 17~33% 더 많아 고객당 단가 男이 높아

베이커리 업계가 특수를 기대하는 화이트데이와 밸런타인데이 중 매출은 연세가 더 많을까. CJ푸드빌은 지난 5년 동안 자사의 베이커리·커피 전문점 브랜드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 화이트데이 매출이 밸런타인데이보다 매년 20~25% 더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CJ푸드빌은 투레주르·투썸플레이스·콜드스톤 등을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에서도 2011~2013년 화이트데이와 밸런타인데이 매출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 등을 주는 화이트데이 때 매출이 17~33% 더 많았다.

SPC그룹에는 파리바게뜨·던킨 도너츠·베스킨라빈스 등의 브랜드가 속해 있다.

업계는 이런 매출 차이를 남녀의 소비 패턴 차이 탓으로 보고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고객당 단가가 높은 데다 가까운 매장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은 베이커리 업체뿐 아니라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 초콜릿 선물을 준비하는 데다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아 남성보다 고객당 단가가 낮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남성 고객은 케이크나 박스·바구니형 등 크기가 큰 선물을 선호해 여성보다 고객당 단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화이트데이 기념 주얼리 선물세트

백화점에서는 14일까지 화이트데이 기념 선물세트를 구입하면 사랑을 증명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화이트데이(14일)를 앞둔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주얼리 매장에 화이트데이 인기 상품인 주얼리 선물세트가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

현대아산 빌앤더스 시공예정사 선정

광주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가칭)가 현대아산 빌앤더스를 시공 예정사로 선정했다.

12일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에 따르면 ‘운암산 현대아산 빌앤더스’는 광주시 북구 동림동 75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5층 12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84㎡ 495가구, 63㎡ 177가구, 62㎡ 134가구 등 총 80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호남고속도로와 빛고을로, 제2순환도로, 동림IC 등과 인접해 광주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단지 인근에 영산강 14km의 수변공원과 중외공원, 국립광주 박물관 등 자연·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국제고와 예술고, 전남대, 보건



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가까이 있는 게 장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직접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며 개발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합리적인 시공비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및 자연, 교육환경까지 갖춘데다 3.3㎡당 6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the TV drama 'The King's Affair' (왕의 신의). It features a man in a tuxedo sitting on a throne, flanked by two women in elegant dresses. The background shows a grand, classical-style building. Text includes the title '왕의 신의', 'TV조선 주말드라마스페셜', and broadcast information: '2월 22일 부터 매주 토·일 저녁 8시 방송'.